

	인도(뉴델리) 통상사무소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해외동향보고서	담당자	하 승 창 소 장 이 영 훈 과 장
		일 시	2022.11.23.

## CEPA Insight

- G20 정상회의 차기 의장국 인도, 세계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 기대
- 삼성전자, 인도 미디어 스타트업 인수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추진

### < 2022년 10월 기준 對 인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1,396,556천불	△ 0.3%	522,753천불	△ 29.5%	873,803천불
충남	156,805천불	△ 12.6%	16,835천불	△ 68.9%	139,970천불

※ 출처 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## ■ G20 정상회의 차기 의장국 인도, 세계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 기대

- 모디 총리, G20 정상회의를 세계 변화의 촉매제로 만들겠다고 선언
  - 모디 총리는 인도의 G20 의장직 인수는 모든 인도인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며 이로 인한 개발 혜택을 모든 인류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
  - 내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정상회의 주제는 '하나의 지구, 하나의 가족, 하나의 미래(One Earth, One Family, One Future)'이며, 평화와 안보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, 기술혁신 구현 강조(출처: 연합뉴스, 2022. 11. 16.)

### ※ G20(Group of 20) 개요

- 선진 7개국 정상회담(G7)과 유럽연합(EU) 의장국,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
- G20 국가 총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, 국내 총생산(GDP)은 전 세계의 90%, 교역량 80% 이상 차지
- G20은 5개 그룹으로 구분되며, 미국, 캐나다, 사우디아라비아, 오스트레일리아가 1그룹, 러시아, 인도, 튀르키예,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그룹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멕시코가 3그룹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가 4그룹, 한국을 포함한 일본, 중국, 인도네시아가 5그룹에 해당

※ 출처: 두산백과 두피디아([www.doopedia.co.kr](http://www.doopedia.co.kr))

• **G20 정상회의 개최, 최대 수혜자는 모디 인도 총리**(출처: 뉴시스, 2022.11.18.)

- 인도는 내년 G20 정상회의 주최국이자,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전 세계 남반구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
- 영국 런던킹스칼리지 하쉬 판트 교수는 “모디 총리는 인도가 국제 질서 아래 가난한 나라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나라로 비쳐지도록 노력할 것”으로 예상
- ※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면서 모두로부터 구매받게 된 덕분에 인도

內 지지도도 상승하고 있으며, 국제적 실세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

■ **삼성전자, 인도 미디어 스타트업 인수로 현지 시장 적극 대응 전망**

• **현지 미디어 소비동향 분석, 스마트 TV 서비스 개선 등 맞춤형 마케팅 예상**

-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인도 미디어 기술 테크 스타트업인 ‘ZAPR’ 인수(지분 100% 보유)로 첨단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활용, 소비자 TV 및 모바일 소비패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
※ 스마트TV 서비스 개선은 물론 소비자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인도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

- 특히, 인구 대비 TV, 세탁기, 에어컨 등 가전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기대(출처: 헤럴드경제, 2022.11.16.)

※ 현재 삼성전자는 노이다에 스마트폰 공장, 첸나이게 백색가전 공중 운영 중

■ **한-인도 경제, 무역환경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진출방안 모색 필요**

• **인도 경제, 지속 성장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 접근 전략 필요**

- 인도 內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고 차년도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경제적으로 활발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
- 인도 시장을 선점을 위하여 현장 동향과 성장 가능성 사전 파악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현지 진출전략 도출 필요

※ 특히, 인도 정부가 ‘Make in India’ 정책을 장려하기 때문에 단순 완제품 수출을 비롯하여 기술 협력, 부품 수출 등 다방면에서의 접근 전략 필요. 끝.